



양현종



나지완

‘좌완 93승’ 타이거즈 역사가 되리라 ‘208홈런’

‘프랜차이즈 스타’ 투수 양현종과 외야수 나지완이 타이거즈 역사를 바꾼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양현종은 2007년 동성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11년 차 좌완 투수다. 양현종은 좌완이 귀한 KIA에서 ‘특별 관리 선수’로 애지중지 키워졌다. 지금은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제구와 높은 프로의 벽에 좌절하며 그라운드 한 곳에서 눈물을 쏟던 날도 있었다. 서울 신일고를 거쳐 단국대를 졸업한 나지완도 고향은 광주다. 이들도 아버지가 무등산 ‘지왕봉’에서 따와 지어주셨다. 대졸 10년 차인 나지완은 타이거즈 역사상 첫 개막전 신인 4번 타자로 프로에 데뷔했다. 그는 2년 차인 2009년에는 이해 프로야구의 중요를 알리는 한국시리즈 끝

내기 홈런을 날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부진의 시간을 겪으며 ‘밑상’ 선수로 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나지완은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타자다. 환호와 시련의 시간을 넘어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한 두 사람은 올 시즌 FA(자유계약) 신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다른 곳에서의 러브콜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선택은 타이거즈였다. 양현종은 이례적으로 1년 계약을 통해 팀에 잔류했고, 나지완도 금액이 아닌 팀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KIA에 남았다. 두 사람은 ‘모범 FA’로 2017시즌을 보내고 있다. 승운 없던 양현종은 올 시즌 동료들의 지원 사격 속에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 나지완도 시즌 1호 홈런, 1호 만루홈런의 주인공으로 스타트를 끊은 뒤 꾸준히

‘11년차’ 양현종 시즌 5연승하며 92승 ‘까치’ 김정수와 타이 “100승 보다 더 감격” 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다. 4월 1위 행보에 힘을 보탤 두 사람은 타이거즈 역사를 위한 결심도 견고 있다. 양현종이 먼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NC전에서 시즌 5연승에 성공했다. 이 승리로 양현종은 통산 92승 투수가 됐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16승 고지에 오

‘10년차’ 나지완 개막전 신인 4번타자 데뷔 프로통산 42번째 150홈런 김성한 207홈런 성큼성큼 르며 1991년 신동수, 1992년 김정수가 기록한 14승을 넘어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던 그는 이제 통산 최다승을 노린다. 타이거즈 좌완을 대표했던 ‘까치’ 김정수 재할코치의 통산 92승과 타이틀을 이룬 양현종은 다시 한번 승리투수가 되면 타이거즈 좌완 역사에 새 기록을 남기게 된다. 본인 스스로 “100승보다 더 감격스러울

것 같다”며 93승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KIA의 홈런타자~ 타이거즈 홈런타자 나지완~”이라는 자신의 응원가 가사처럼 나지완은 홈런 타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 지난 4월 2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만루포를 쏘아 올린 그는 29일에는 NC 해키를 상대로 시즌 5호포이자 자신의 통산 150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프로야구 통산 역대 42번째. “아직 갈 길이 멀었다. 200홈런을 치고 난 뒤 소감을 밝히겠다”고 묵묵하게 150홈런에 관해 이야기했던 나지완은 200을 넘어 207홈런을 보고 있다. KIA 최다 홈런 1위는 1일 현재 283개의 홈런을 기록한 이병호다. 그리고 239개의 최정우가 뒤를 잇고 있다. 두 선배에 비해

나지완의 홈런은 한참 부족하다. 그러나 선수 타이거즈 홈런만으로 따지면 나지완도 이름을 남길 만 하다. 나지완이 남길 수 있는 기록은 김성한의 207홈런이다. 김성한은 타이거즈 선수로 14년을 뛰면서 ‘호랑이 홈런왕’으로 남아있다. 선수 타이거즈 기록을 따질 것도 없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타이틀도 있다. 올 시즌 벌써 5번 공에 맞은 그는 ‘호랑이 군단’ 사(死)구 1위다. 프로 17년 차의 이병호가 106개, 홈런만큼 많은 사구를 기록한 김성한도 88개다. “(공에 맞으면)정말 아프다”고 울상을 지으면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팬창다”는 나지완이 씩씩하게 207홈런 고지를 향해 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빅리저 ‘힘겨운 하루’

‘엉덩이 타박상’ 류현진 부상자 명단에... 오승환, 홈런 허용 시즌 첫 패전

코리안 빅리저가 2일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팀 동료의 아쉬운 실책 속에 홈런을 허용하고 시즌 첫 패전을 기록했고,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오승환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홈경기에서 4-4로 맞선 9회초 등판해 1.2이닝 2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1볼넷(고의4구) 비자책 3실점으로 무너졌다. 9회는 1피안타 무실점으로 무사히 넘긴 오승환은 10회 팀 동료 실책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오승환은 첫 타자 에르난 페레스를 2루수 실책으로 1루에 내보냈다. 2루수 윌이 평범한 정면 타구를 한 차례 놓쳤고, 다시 1루에 악송구했다. 조너선 빌라의 희생 번트로 에릭 테임즈 앞에서 1사 2루가 되자, 세인트루이스 벤치에서는 고의 4구를 지시했다. 테임즈를 1루에 보낸 오승환은 도밍고 산타나에게 삼진을 뿏었다. 그러나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트레이스 쇼에게 던진 몸쪽 낮은 슬라이더가 홈런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즌 3번째 홈런 허용이다. 실책이 나온 이닝에서 2사 후 홈런을 허용한 오승환은 불행 중 다행으로 자책점이 올라가지 않아 평균자책점은 4.50에서 3.95로 내려갔다. 97일 만에 승리투수가 된 류현진은 예상치 못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LA 다저스는 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



류현진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전에서 4회 중전안타를 치고 출루해 앤드루 톨스의 타구 때 2루를 향해 슬라이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SNS)에 “류현진이 왼쪽 엉덩이 타박상으로 10일짜리 DL에 올랐다. 조시 필즈를 트리플A에서 빅리그로 콜업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전날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하지만 시즌 첫 승 하루 뒤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엉덩이 타박상을 입은 류현진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류현진의 부상이 ‘슬라이딩

후유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류현진은 전날 필라델피아전에서 4회 중전안타를 치고 출루해 앤드루 톨스의 타구 때 2루를 향해 슬라이딩하다 엉덩이가 그라운드에서 떨어져 충격을 받았다. 당시에는 큰 문제 없이 투구를 이어갔지만, 현지 기자들은 SNS에 “류현진이 슬라이딩에서 충격으로 DL에 올랐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류현진이 부상자명단에 오른 것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6번째다. /연합뉴스

‘매치플레이가 좋아’ 박성현 LPGA 첫 승 도전

5일 멕시코시티서 오초아 매치플레이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슈퍼투키 박성현은 매치플레이 방식 경기를 좋아한다. 장타를 앞세운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데다 한 홀에서 대량 실점을 해도 다음 홀에서 만회할 수 있는 매치플레이의 매력에 취하며 딱 맞는다고 박성현은 말한다. 작년 이맘때 박성현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승부사 기질을 마음껏 과시했다. 결승전에서 16번 홀까지 2홀 차로 뒤져 패색이 짙었지만 17번 홀에서

회심의 버디를 잡아냈다. 기세에 눌린 상대는 18번 홀에서 파세이브에 실패했다. 연장전에서 박성현은 3m 버디로 짜릿한 막판 역전극을 연출했다. 올해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연착륙에 성공한 박성현이 입맛에 맞는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첫 우승에 도전한다. 박성현은 오는 5일(한국시간)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장(파72)에서 개막하는 LPGA투어 시티바나맥스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에 출전한다. 출전 선수 64명은 1대1 맞대결을 벌여 이기는 선수는 32강, 16강, 8강, 4강, 그리

고 결승전 또는 3-4위전을 치른다. LPGA 투어에서 매치플레이는 2012년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끝으로 없어졌다가 5년 만에 부활했다. 시즌 5승을 합작한 한국 자매 군단은 박성현과 함께 만년신 박민비를 비롯해 전인지, 장하나, 김세영, 허미정, 신지은, 이미향 등이 출격한다. 눈병으로 텍사스스타에서 기권했던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1위에 바짝 다가선 에리아 주타누간(태국)도 출전한다. 세계랭킹 2위 유소연과 5위 렉시 토프스(미국)는 출전하지 않는다. 양희영, 이미림,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노무라 하루(일본) 등 올해 챔피언 반열에 오른 4명도 이번 대회는 건너뛴다. /연합뉴스

추신수, ML 올스타 후보에

‘만행’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올스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일 홈페이지 MLB닷컴을 통해 올해 올스타 팬 투표를 시작하며 리그별, 포지션별 후보를 발표했다. 추신수는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 부문 후보로 뽑혔다. 지난해에는 추신수와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올스타 후보에 올랐으나 올해 한국 선수 중에서는 추신수가 유일하다. KBO 리그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한 뒤 메이저리그에 복귀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에릭 테임즈(밀워키 브루어스)는 내셔널리그 1루수 부문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양학선, 기계체조 국가대표 1차선발전 도마 1위

‘도마의 신’ 양학선(25·수원시청)이 남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도마 종목 정상을 올랐다. 양학선은 지난 1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광에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도마 종목에서 14.850점을 획득, 1위를 차지했다. 개인종합에서는 마루(12.500점)-안마(12.650점)-링(13.600점)-이단 평행봉(12.450점)-철봉(12.350점) 등 6종목 합계 78.400점으로 6위에 올랐다. 이로써 양학선은 성적(7명)과 추천(7명)으로 14명을 선발하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가볍게 통과했다. 개인종합 1위는 박민수(82.300점), 2위는 이준호(78.950점), 3위는 윤진성(78.800점) 순이었다. 이번 선발전은 8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제19회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할 대표 5명,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47회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대표 6명을 뽑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번 선발전에서 최종 명단의 3배수를 뽑은 뒤 7월 초 2차(최종) 선발전을 치른다. 양학선은 한국체대 대학원생 신분으로 세계선수권뿐만 아니라 유니버시아드 출전을 노리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 종목에서 한국 기계체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양학선은 그러나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도중 아킬레스건을 다쳐 올림픽 2연패 도전이 좌절됐다. 재활에 전념한 양학선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회 도마 1위를 차지하며 부활을 알렸다. /연합뉴스